



제74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25일)

## 우리 그림 속 옛 이야기 - 서원아집도

강한라, 202-3호 서화Ⅱ실 18:00~18:30

자그마한 부채 속,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파초와 괴석, 그리고 소나무가 이곳이 잘 꾸며진 정원임을 알려줍니다. 붓을 쥐고 작품에 한껏 몰두해 있는 사람도, 악기 연주에 한참인 이도 있습니다. 이들을 둘러싼 인물들도 작품과 음악에 집중하고 있어 정원에 모인 사람들이 풍류를 아는 문사들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동아시아 문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일화이자 그림 주제 중 하나인 '서원아집西園雅集', 즉 '서쪽 정원에서 열린 아취 넘치는 모임'을 그렸습니다. 1087년 북송 왕실의 부마인 왕선(王詵, 1048~1104)은 저택 서쪽 정원에 소식蘇軾(1037~1101)을 비롯해 당대 최고의 문화계 명사 16인을 초대하여 함께 풍류를 즐겼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인물화로 유명한 이공린李公麟(1049~1106)이 모임 장면을 그림으로 담고, 서예가로 이름 높은 미불米芾(1051~1107)이 그림에 글을 지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림은 사라졌지만, 미불의 「서원아집도기」는 전해 내려와 '우아한 문인 모임'의 대명사로 이 모임이 회자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서원아집도는 주인공만 16명에 이르렀으므로 대폭의 족자나 병풍에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 작품은 선면이라는 제한된 규모와 형태에도 불구하고, 미불의 글에 묘사된 정원의 모습은 물론이고 참석자들의 모습과 행동, 시종드는 인원의 모습까지 꼼꼼하게 옮겨 냈습니다. 이에 더해 수려한 필치의 「서원아집도기」 원문까지 곁들여져, 조선 문인들이 동경해 마지않았던 옛 문사들의 한 때를 한 손 부채 속에 오롯이 간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 밖에도 시대를 함께하며 예술적 교류를 이어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가는 화면 오른쪽 바위에 '무술년(1778) 여름 비오는 날 그려 용눌用訥에게 주다'라는 관지를 남겨 이 작품이 특정 대상을 위해 제작한 그림임을 밝혔습니다. 관지마저 화면 속 미불의 붓을 빌린 듯 재치 있게 표현한 이 작품의 화가는 김홍도金弘道(1745~1806?), 서원아집도기를 줄마다 번갈아가며 길이를 달리해 적어 화면에 리듬감을 더한 이는 강세황姜世晃(1713~1791), 작품을 받은 사람은 김홍도가 애정을 담아 교유했던 역관 이민식李敏植입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그림보다 글이 한 해 앞서 담겼습니다. 김홍도는 그림을 매개로 교유한 소중한 지인에게 건넨 작품에 전설적인 풍류 모임인 '서원아집'의 순간을

펼쳐냈습니다. 귀한 이의 글씨를 담아두었던 화폭을, 부채가 만드는 시원한 바람 한 자락이 귀해지는 계절이 오자 잊지 않고 완성하여 전했을 화가의 마음을 떠올려봅니다.



김홍도, 〈서원에서의 우아한 모임〉, 조선 1777~1778, 종이에 색, 덕수2415

제74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25일)

## 700년 동안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불상 - 금동아미타삼존불

양수미, 301호 불교조각실 18:00~18:30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만들어진 금동아미타삼존불상입니다(그림 1). 본존불인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상을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상을 두었습니다. 이 삼존불은 만류새가 뛰어난 고려 후기의 상으로 동그란 얼굴에 지긋이 뜬 두 눈, 짧고 오뚝한 코와 작은 입이 특징입니다. 두 보살상의 바닥에는 고려 1333년에 장현張鉉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선씨宣氏가 함께 후원해서 불상을 만들었다는 묵서墨書가 쓰여 있어서 상이 제작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삼존불상의 내부에서는 다양한 복장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복장물은 불상의 내부에 봉안하는 성스러운 물건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 13세기 전반에는 복장물을 봉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타삼존불상의 복장물 가운데 불상 제작에 참여한 후원자들의 이름이 적힌 복장 발원문發願文 한 점이 눈에 띕니다(그림 2). 모두 276명의 이름이 적혀있는데요, 상을 만드는 일을 주도한 승려들, 신분이 높은 후원자들의 이름과 더불어 ‘막생莫生, 덕이德伊, 복이福伊’ 등 평민들의 이름도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상을 만드는데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700여 년 전, 이 상을 만든 고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요?

	
<p>그림 1. 아미타삼존불, 고려 1333년, 금동, 높이 69.25cm(아미타불), 86.42cm(관음보살), 보물, 덕수71(아미타불), 덕수3363(관음보살), 덕수3364(대세지보살)</p>	<p>그림 2. 복장 발원문, 고려 1333년, 종이에 먹, 56.7×60.3cm, 덕수5425</p>





제74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25일)

## 조선을 바꾼 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김진실, 118호 조선Ⅱ실 19:00~19:30

조선은 16-17세기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되어 조선, 명, 일본이 참전한 동아시아 국제전이었습니다. 조선은 7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떠안았고, 조선에 군대를 보낸 명은 북방에서 성장한 후금을 견제하지 못하고 명청교체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은 에도막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이후 격변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청의 침입으로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세력을 키운 후금(청)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다시 큰 전쟁을 겪고 굴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 두 전쟁은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후기에는 이 두 전쟁을 일컬어 양난兩難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무기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신무기인 조총鳥銃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화약무기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살상력이 높은 대형화포를 판옥선이나 거북선에 실어 일본 군선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화약무기인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도 발명했습니다. 일본의 조총을 노획하여 제조기술을 확보했고 명나라의 무기기술을 수용하여 삼안총三眼銃과 불랑기佛朗機 등을 개발했습니다.

전쟁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참혹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 상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쟁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위정자는 통렬한 반성을 기록하였습니다. 도망간 관군을 대신하여 지역의 백성을 지킨 의병장도 있었습니다. 백성은 피란살이를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생생한 경험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국가에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으로 책봉하여 그 공적을 기렸습니다. 민간에서는 장수, 의병장, 순절자의 이야기를 소설과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영웅의 활약상을 주제로 한 소설을 읽으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전란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계속되었습니다.

제74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25일)

## 고구려 고분벽화 이야기

김태영, 105호 고구려실 18:00~18:30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할 때 우리는 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역사서를 봅니다. 동시기 혹은 살짝 늦은 시기에 작성된 역사서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연구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쓴 역사서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역사를 살펴볼 때 광개토대왕비 같은 금석문金石文 자료나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같은 역사서를 참고합니다. 비록 역사서는 전하지 않지만 고구려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의 공간인 무덤에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고구려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말탄 무사를 그린 벽화편(쌍영총 출토)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고분벽화는 주로 인물 및 풍속도, 장식무늬, 사신도의 3개 주제로 구분됩니다. 인물풍속도와 장식무늬는 주로 4~5세기경에 활발하게 그려졌습니다. 인물도, 행렬도, 수렵도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벽화가 있는 고분들이 축조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악3호분을 비롯한 무용총武勇塚, 각저총角觚塚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기 사신四神 역시 벽화의 일부로 그려졌으나 사신이 벽화의

중심이 된 시기는 6세기 이후로 보입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문자명왕에 이르는 긴 전성기 이후 펼쳐진 혼란의 시기에 고구려 사람들은 평온한 안식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방을 수호하는 사신을 고분의 네 벽에 그렸습니다. 고구려실에 전시되어 있는 사신도는 그중 대표적인 강서대묘의 사신도를 모사한 것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벽화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고구려 사람들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일본의 다카마쓰 고분과 저 멀리 우즈베키스탄 아프람시압 벽화에서도 고구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